

세계의 벗은 지금 ‘청년·비약편’

2022년 8월 26일

제7회 이탈리아 청년부

“한 사람도 방지하지 않겠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유대를 맺는 도전

각국·각지의 청년 리더의 광포(廣布) 활동 모습을 소개하는 「세계의 벗은 지금 ‘청년·비약편(編)’」. 제7회는 이탈리아 창가학회의 미셸 주세포네(Michele Giuseppone) 청년부장, 안드레아 치코렐리(Andrea Ciccorelli) 남자부장, 자스미나 치프리아니(Jasmina Cipriani) 여자부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의 사회 상황을 알려주세요.〉

주세포네 청년부장: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는 2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감염된 셈이고, 돌아가신 분은 17만4000명에 달합니다.

치코렐리 남자부장: 올해 4월까지의 출근이나 입점할 때 ‘그린패스(백신접종증명서, 음성증명서,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제시 의무가 있는 등 시민생활에 엄격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제된 후, 한때는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현재는 감소세가 됐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노인 요양·병원시설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의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름 휴가철이 한창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규제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시가 필요합니다.

치프리아니 여자부장: 코로나19 사태는 가정폭력과 학생의 학력저하, 실업자 증가 등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기업·단체의 신중한 자세로 정사원의 채용범위가 좁혀져 계약사원으로 불안정한 수입의 사람들이 많아져 장래에 불안을 품는 젊은이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학회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지요.

주세포네 청년부장: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어느 한 사람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왔습니다. 빠르게 온라인으로 간담회와 회합을 열어 동지의 유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신심(信心)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며 ‘창가학회(創價學會) 영원한 5지침’에 대해 배우는 강좌를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전송. 여기에는 장년부(壯年部)·부인부(婦人部)와 함께 청년부(靑年部)의 대표도 등단했습니다.

또한 매일, 청년부의 웹 사이트 ‘끊임없는 비상’을 갱신하고, SNS 등을 통해 발신. 더욱이 「세이교신문(聖敎新聞)」에 게재된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의 지침(指針)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올해 5월부터는 적은 인원의 대면에 의한 회합을 재개. 각지의 상황에 따라 좌담회(座談會) 등도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코렐리 남자부장: 남자부(男子部)에서는 올해 1월부터 ‘남자부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주(州)마다 교학연찬 모임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케다(池田) 선생님의 『어서(御書)의 세계』를 교재로, ①사제의 정신을 배우다 ②자신의 성장을 통해 주위의 환경을 바꾼다 ③흔들리지 않는 신심(信心)의 체험을 잡는다 ④홍교의 결실을 맺는다 ⑤좌담회의 주체자가 된다는 목표를 하여 광포(廣布)의 사명과 자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치프리아니 여자부장: 여자부(女子部)에서는 리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정중히 듣고, 신뢰를 깊게 다져 ‘함께 승리하자’고 서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케다화양회(池田華陽會) 어서(御書) 30편』의 연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진척 상황을 리더가 정기적으로 온라인의 모임에서 공유. 광포(廣布)가 전진하는 모습이 이탈리아 전역에 전해지면서 신심(信心)의 기쁨이 겹겹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한 여자부원(女子部員)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꿈이었던 프로 소프트볼 선수가 됐고 대학 진학도 이뤄냈습니다. 또 다른 여자부원은 학회활동(學會活動)을 하면서 록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벗들이 신심(信心)의 실천으로 자신을 닦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전진, 함께 승리! - 7·11 '남자부 결성기념일', 7·19 '여자부 결성 기념일'을 축하하는 이탈리아 라치오(Lazio) 제1·제2·제3주 합동총회. (지난 7월 17일, 로마문화관에서) @seikyoonline.com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탈리아 광포의 행보는 멈추지 않는군요.

주세포네 청년부장:

지난 2년간 4000명의 신입회 멤버가 탄생했습니다. 이 중 1000명은 청년부원입니다. 역경(逆境)에 굴(屈)하지 않고, 어떻게 격려하고 유대를 강화해 갈 것인가. - 이것은 전례가 없는 도전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미래부(未來部), 학생부(學生部=대학부)도 포함한 전국의 청년부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연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을 목표로 각자가 매일 진지한 창제(唱題)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불법대화(佛法對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치코렐리 남자부장:

어느 주(州)의 남자부 리더는 약혼자를 절복(折伏)하고 결혼. 큰딸이 태어나 장모도 회우가 되었지만 장인의 학회에 대한 물이해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6월에 실시된 이탈리아문화회관의 개관 30주년 기념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가. 이탈리아 창가학회의 사회공헌과 발전을 본 장인은 그동안 학회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 좋은 이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문화회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이탈리아 참가학회가 기획·제작한 환경전시 <삶(生)의 계승>전(展) 등도 진행되어 주지사를 비롯해 2500명이 방문했다. (지난 6월 26일)@seikyoonline.com

핵폐절 운동으로 사회에 공헌

2016년에는 국가와 맺은 인테사(INTESA, 종교협약)가 발효되는 등 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치프리아니 여자부장:이탈리아 참가학회는 이케다 선생님의 지침을 가슴에 품고 ‘좋은 시민’으로서 사회공헌에 진력. 2011년부터는 핵무기 폐절(廢絶)을 호소하는 전시운동 센자토미카(Senzatomica, 핵무기는 필요 없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83개 회장을 순회해, 내방객은 36만 8000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 40%는 차대를 담당할 초중고생입니다. 이 전시의 준비에 종사한 멤버는 총 1만 5000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금은 국가를 대표하는 평화운동으로서 사회에 인식되어, 6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무기금지조약(核武器禁止條約)」 제1차 체결국 총회에 청년부가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주세포네 청년부장:우리 청년부에게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주체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벗의 행복을 바라고 사회에 진력하는 삶의 자세를 밝히신 이케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스승의 구상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탈리아 청년부는 구체적인 실증을 통해 신심의 위대함을 나타내 가겠습니다.



치비타베키아(Civitavecchia)시에서 열린 <핵무기 폐절에 대한 도전>전(展).(2013년) 이탈리아 창가학회의 평화전시는 곳곳에서 호응을 이끌어 왔다.@seikyoonline.com